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삼성 SDS

신항공관제시스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삼성SDS는 12월 8일 신한공교통관제시스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현재 운영중인 항공교통관제시설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와 2000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항공 교통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축되는 것으로 예산은 3백35억원 규모이며, 구축기간은 2000년까지이다.

사업내용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안전운항과 정시성 확보 등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신시스템 도입 및 설치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CNS/ATM과 같은 미래위성항행 기술 개념의 반영 등을 통해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삼성SDS를 포함

한 국내 7개 SI업체가 외국사들과 협력하여 지난 9월 25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사전자격심사, 기술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10월 27일 삼성SDS, HIT, 금호텔레콤을 1차 대상업체로 선정했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S의 한 관계자는 『신항공교통관제시스템 도입 및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도입과 효과적인 국내기술이전이 핵심』이라면서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구축분야에 경험이 많고 신뢰성 있는 미국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를 기술협력사로 선택, 삼성SDS가 기술이전을 받아 완벽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

베트남·러시아에 전자교환기 수출

LG정보통신이 국산 통신장비 수출 전략지역인 베트남과 러시아에 대용량 교환기를 수출한다.

LG정보통신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 근교 북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97년 베트남 2차 교환기 공급 입찰에서 알카텔, 씨멘스, NEC 등 외국의 대형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최종 공급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러시아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사마라시에 12만회선급 대용량 전자교환기를 수출키로 하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LG정보통신이 베트남에 공급하는 모델은 베트남 합작법인인 VKX에서 자체 개발한 12만 회선급 대용량 전자교환기「스타렉스 VK」로 내년 1.4분기중 개통할 예정이다. 러시아 사마라시에 제공하는 「스타렉스 TX1」은 12만 회선급이며 내년 상반기중 우선 3만회선을 개통시킬 계획이다.

LG정보통신은 베트남의 경우 지난 1월 라이차이오 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입찰에서도 공급 계약을 획득한 바 있어 이번 수주로 현지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게 됐고 특히 해외 우수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고 설명했다.

LG정보통신은 러시아 지역 역시 지난 92년부터 모두 15만 회선의 교환기를 수출, 이 지역 통신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판단, 앞으로 개인휴대통신(PCS) 무선가입자망(WLL)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시스템의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통신

중장기 경영전략 확정

오는 99년부터 멀티미디어 시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하나로통신이 오는 2005년 외형 5조원 규모의 초일류 통신사업자로 발돋움한다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나로통신이 12월 10일 확정 발표한 「하나로 비전 2010」은 21세기 초고속통신시대에 대응, 기존 시내전화는 달리 음성에서부터 고속 인터넷, 영상전화,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내 전화 서비스를 제공, 2005년 5조원, 2010년 15조원의 매출을 각각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오는 99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내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01년에는 인구 20만 이상 주요도시, 2003년에는 전국일원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또 서비스 첫해인 99년 시장점유율 2.6%, 매출 1천5백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3년까지 연평균 51%의 고속성장을 지속, 점유율 24.6%를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1천8백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최단시일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나로통신은 이를위해 오는

2003년까지 총 투자액 5조8천억원의 77.4%인 4조5천억원을 전송 및 선로, 단말기 등 설비부문에 집중 투입해 광케이블, 무선가입자망(WLL), CATV망을 중심으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은 특히 오는 2000년부터 데이콤, 한국전력 등 주요 주주사들은 물론 국내의 통신사업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핵심 기술 인력 확보를 겨냥,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통신업체들과의 상호 인력파견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총 1조원의 납입자본금 가운데 약 1천억원 가량을 내년초 국민주 형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쌍용정보통신

98년 SI시장 집중 공략

쌍용정보통신은 올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인 「ONCE(Optimized Network Computing Environment)」를 기반으로 내년 SI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고 밝혔다.

쌍용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시퀀트 존 맥아담 사장과 공동으로 이같은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이를위해 우선 「누마Q 2000」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재의 오픈 컴퓨팅 환경에서 업무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통합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가능케 하는 기업정보시스템용 운영환경인 「데이터 센터」 구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인 「ONCE」를 도입, 전산투자 비용 절감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고객을 중심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dra(Hydra) 전략과 연계, 차세대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이를 위해 최근 시퀀트 사업본부의 영업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전문 기술팀 구성, 고객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쌍용은 특히 내년에는 시퀀트사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노후우를 적극 수용, 금융, 통신 및 유통권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SAP, 바안(Baan)사 등 전사적자원관리(ERP) 벤더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한국PC통신

종합 멀티미디어서비스 도약 시동

한국PC통신이 12월 9일 창립 6주년을 맞아 종합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업체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한국PC통신은 올해를 포함, 4년 연속 달성한 연평균 30억원의 흑자를 기반으로 하이텔을 국내 최대의 멀티미디어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고객지원 강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PC통신은 인터넷 푸시기술을 활용한 주문형 정보서비스 「하이캐스트」와 PC통신, 인터넷상의 전자우편을 전화, 삐삐, 휴대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제공하는 「하이텔레포니」 서비스를 12월 9일부터 제공기로 했다.

또 98년 1월부터는 인터넷 기반에서 멀티미디어 채팅과 게임을 동시에 지원하는 「비주얼채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PC통신은 고객상담업무의 향상을 위해 컴퓨터통신통합(CTI) 시스템을 구축, 12월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하이텔의 이용자의 PC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S기동대를 10일부터 가동한다.

한국PC통신이 서비스에 들어간 「하이캐스트」는 뉴스속보, 증권, 날씨 등 11종의 정보를 매일 이용자의 PC에 자동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스크랩기능, 화면보호기능 등도 제공한다. 한국PC통신은 일 반전화선을 통해 하이텔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위해 원클릭서비스를 도입, 정보내려받기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텔레포니」는 각종 문서파일로 전송된 전자우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에서 처음이다.

한국PC통신은 「하이텔레포니」 서비스와 사내 CTI시스템을 연동,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 IBM

한국물류정보시스템 시장 공략

한국IBM이 기업 단위의 물류정보시스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IBM은 물류창고업무를 중심으로 개발된 패키지프로그램인 「DCOS(Distribution Center Operation System)」를 발표하고 유통 및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IBM은 그동안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영업위주에서 벗어나 유통과 물류정보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제조업체에까지도 이 시스템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앞으로 제조업체에서부터 유통업체 그리고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정보채널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국IBM이 이처럼 기업단위의 물류정보시스템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 데는 최근들어 유통 및 제조업체에서 일부업체를 중

심으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DCOS는 제품의 수주에서 생산까지 정보흐름을 원활히 해 제고수준을 낮추고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비절감과 실시간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SK 컴퓨터통신

전사적 문서관리시스템 개발

SK텔레콤이 전사적 문서관리시스템 「다큐서브(Docu Serve)」의 98년판 새 버전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다큐서브」는 전사적 문서공유시스템으로 보안체계가 완벽하고 문서의 체크인, 체크아웃, 버전관리, 로그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터넷 메일이나 윈도우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어 문서의 저장 및 활용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이문서의 스캔모듈 및 문서등록 모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룹웨어를 비롯한 다른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SK컴퓨터통신은 그룹내 계열사 및 관공서, 금융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인터넷

방송대와 원격교육 협력

LG인터넷은 한국방송대학교(총

장 한완상)와 12월 4일 신라호텔에서 인터넷 전용 스타터킷(Starter-kit) 공동배포 등 인터넷 기반의 원격교육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키로 협력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이 서명한 협력방안에 따르면 LG인터넷은 자사서비스인 채널이아이(Channel ei)의 전용 브라우저가 내장된 스타터킷 방송대판 15만매를 98학년도 방송대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무상증구하고, 인터넷 원격교육 코스웨어개발을 통해 방송대의 원격교육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방송대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자-데이콤

위성휴대통신 자회사 설립

현대전자와 데이콤이 범세계 위성휴대통신(GMPCS)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한다.

현대전자와 데이콤은 GMPCS 프로젝트의 하나인 글로벌스타의 국내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스타코리아(가칭)」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 12월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의 글로벌스타 위성 지구국에서 데이콤 박치영 사장과 현대전자 김영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작을 통해 내년 1월 설립

되는 글로벌스타코리아는 초기 자본금 1백44억원으로 데이콤과 현대전자가 각각 60%, 40%의 비율로 지분 참여하게 되며 글로벌스타와 관련된 국내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스타코리아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휴대통신 사업가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오는 99년 1월 상용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본허가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스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콤과 현대전자는 이번 계약의 체결로 『국내 위성통신서비스의 장기적인 발전과 함께 위성관제 및 위성체 제작 기술 확보 등 관련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정보통신

기업연금시스템 국내 생보사에 공급

교보정보통신이 국내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기업연금관리 시스템 패키지 공급에 적극 나섰다.

특히 교보정보통신이 공급하는 기업연금관리 시스템은 기존 공급업체들이 개발한 CS환경과는 달리 HOST 환경으로 개발함으로써 종래 HOST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보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보다 저렴하고 신속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교보정보통신은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일본 협영생명보험사의 기업연금시스템환경을 다년간 연구, 검토해온 바 있다. 당초 교보정보통신은 모회사인 교보생명에만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초에 기업연금 시장이 본격화되고 이 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국내 생보사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 기업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시스템을 공개하고 패키지화하여 공급키로 했다. 이로써 SI업계에서는 교보정보통신, 삼성 SDS, 동양시스템하우스 등 3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기에 후발 주자로 나선 한국유니시스도 가담하여 98년도 기업연금관리 시장은 한껏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퇴직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SI업체들이 기업연금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96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이 제도를 도입, 국내 약 40여개사에 달하는 생명보험사에서 내년 초부터는 상품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연금관리 시스템 SI시장은 약 2백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업연금시장은 총 18조원대로 추산된다. ◆